



“치의 자존심·국민신뢰 회복할 것”

정·관계, 치과계 인사 등 200여명 참석 / 이수구 27대 협회장 취임식 ‘성료’

이수구 협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7대 집행부는 5월 15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정·관계 인사, 치과계 내외빈, 신임 이사진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지고 새 시대, 새 치협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특히 이수구 협회장은 이날 준비된 취임사를 통해 먼저 치과 의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한편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참석한 내외빈과 회원 앞에서 천명했다.

이 협회장은 “저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만큼 이제 제 27대 집행부가 회무를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저희의 멘토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저희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협회장은 ▲정부 당국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해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부활시키는 한편 ▲대국민 홍보기능을 확대해 국민들의 덴탈아이큐를 강화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장애인 치과병원을 확충하는 등 사회적 기여와 나눔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해 치과의사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들도 축하인사를 통해 이 협회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의 순항을 기원했다.

김춘진 통합민주당 의원은 “직전 회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역대 회장님들이 길을 잘 닦아 놓았다. 신임 협회장님께서 이 길 위에 벽돌 한 장을 올려 달라”며 “신임 협회장님께서 앞으로 치과계를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회장님을 중심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치과의사상을 정립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돼서 국민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치과의사 회장이 되시길 바란다. 치과의사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치과의사들의 역사와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성모 명예회장은 “이수구 신임 협회장이 앞으로 3년간 어려운 보건의료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며 “이수구 협회장님이 역량을 발휘해 3년,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보건의료계, 치과계의 앞날을 짊어지고 가시도록 성원하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정재규 고문은 “새로 선출된 회장단을 비롯 유능한 집행부 임원이 하나 돼 우리가 기대하는 제27대 집행부가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3년 후 이번 집행부가 웃으면서 박수를 받으며 떠날 수 있도록, 치과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한광수 대한의사협회 고문도 “정말 어려운 때 회장님을 잘 모셨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 내 구강전담 부서가 생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임 협회장님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행정부분 뿐 아니라 봉사하는 치과계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각 참석자들의 축하인사 후에는 취임 축하 떡 절단 순서와 지헌택, 김정균 고문, 김건일 의장 등의 건배제의가 이어졌다.



치의학회 임원구성 완료

치의학회 초도이사회

김여갑 회장을 필두로 하는 제3대 치의학회 집행부가 임원 구성을 완료하고 5월 8일 치협 회관에서 초도이사회를 열었다.

치의학회 부회장에는 권호근 교수와 최재갑 교수가 선임됐으며, 총무이사에는 김현철 원장이 선임됐다.

이번 집행부 임원에는 치의학회가 학술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만큼 학회 및 학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들을 기용했으며, 개원가의 정서를 읽고 융화하기 위해 개원의를 적재적소에 기용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학회의 주요 사업으로서 ▲치의학회지를 영문으로 발간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강화해 나가며 ▲유사학회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치의학회 회칙을 개정해 편집이사와 기획이사를 신설하기

로 하고, 회칙개정(안)을 차기 치협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여갑 회장은 초도이사회에서 “일은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를 치의학회의 일로 만들어 나가자”며 “일을 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지만 하려고 한다면 2만5000여명의 학술적인 면을 총괄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 않았던 일, 없었던 일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각 이사들이 서로 연계하면서 독자적인 추진력을 갖고 일해 나가자”며 “내가 힘들어 주저 앞으려면 끌어내서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 각자 맡은 일이 1년 후 그리고 3년 후가 됐을 때 이사로서 무엇인가를 남겼다는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News
& News

위원회별 사업현황 등 논의 임시이사회·임원 워크숍

임시이사회 및 임원워크숍이 5월 29일 오후 7시 치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규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어 진행된 첫 임원워크숍에서는 각 위원회별 사업현황 및 협회장 공약사항과 대의원총회 수입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임시이사회에서 다룬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규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연구소장이 공석일 때 협회장이 겸직할 수 있게 했으며 필요할 경우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운영을 총괄할 부소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연구소장 이하 각 위원회 위원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이 했다.

임시이사회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임원 워크숍에서 이수구 협회장은 종전에 부회장의 역할이 미약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집행부에서는 각 부회장들에게 회무를 맡겨 관할 위원회 사업들을 진행해 나감으로써 부회장들이 직접 업무를 제대로 파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위원회부터 시작된 각 위원회 보고는 경영정책위원회를 끝으로 자정까지 진행됐다.

이날 다룬 주요내용 중 치과의사전문외제도와 관련해서는 시행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 현 집행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임시총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조인력난에 대해서는 위생사협회와 TF팀을 만들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며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 문제도 방사선사협회 등과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보험, 의료상업화, 영리법인 허용 등의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법제, 치무 등 관련 위원회가 TF팀을 만들어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으며 사이버 대응팀 구성, 가칭 자존심 회복위원회 구성 등으로 외부에서 악의적으로 치과계 때리기가 일어날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수구 협회장은 각 위원회 보고 중간 중간에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예전에도 안된 일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열심히 도전해 보자”고 강조했다.

News
& News

개원가 경쟁력 강화 나선다 치협 건의서

치협이 1차 치과의료기관(개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네 주치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치협은 5월 2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면담과 지난 1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치과의료정책 제안서’를 통해 이 같이 건의했다.

1차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와 관련 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의료전달 체계가 붕괴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대형병원 편중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1차 의료기관과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적정하게 조화를 이룰 때 의료서비스의 질은 물론 국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동네의원 살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은 “치과위생 업무 종사자 인력부족 현상이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일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일정 규모의 치과병·의원에서는 일시적인 인력손실보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의 경우 막대한 업무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치과 보조 인력의 체계적인 단기 육성 방안은 물론, 법적으로 일정 부분 치과위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치협은 초등학생까지 치과 보장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주치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노년기의 건강한 구강 확보는 유년기와 청소년기 건강관리 체계가 유지될 때 가능한 만큼, 유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까지 치과보장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주치의제’ 도입은 물론 서구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가격 정책인 ‘인두제’ 지불방식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중고등학교 치과의사제도 의무화를 실시, 1차 의료기관의 영역확보 및 적절한 보험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문했다.